

## Dear Beloved Partners,

We thank God and all of you for your loving support & prayers. We are going on 5 years this fall in being in this country. Four years ago, during this season, Prisca wrote a letter to a dear deacon in Korea describing how Simon of Cyrene was one person she wanted to meet. It brought many tears to our eyes. As we head into Palm Friday, Christ's Passion, & Easter, we pray it would bless you. (Written 4 years ago)

*"Lately there is a person I would love to meet and ask some questions. His name is Simon of Cyrene. It seemed like bad luck, but it turned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Beat up and bloody, unrecognizable, whether He was human or beast but scared to defy the Roman soldiers, Simon helped carry the cross reluctantly. Filled with indignation, resentment, and anger, Simon continually asked why he had to be at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 carry this criminal's cross. As Simon carried the cross with this silent, young Man with no name, Simon's insecurities and sins were miraculously washed away. Was it the Man's bloody tears, his exhausted grunts, or His mere presence that brought wholeness? I want to ask Simon...how much was my precious Lord in pain and anguish? What did it feel like as you walked the Via Del a Rosa with the King of Kings who could barely breathe? Why did you curse as you were forced to carry the cross with the KING? What changed your heart & mind? When did you realize that this was no ordinary person & the Son of God? When was your heart and eyes flooded with tears as you realized this was the Lamb of God who took our sins. When did you fall on your knees in worship, Simon?"*

Please pray for the following:

1. Speaking at a nearby island in May. Pray that many will believe in our LORD!
2. For God to be glorified during the weekly Bible study. (Expat couple)
3. See fruit as Aquila just finished a Mission Connexion School on-line.
4. Networking with local churches for more ministry opportunities. We just spoke at a local mission small group.
5. Men at the rehab. center to love Jesus more and more.
6. Prisca's drive & teaching, Aquila's health, & summer visit to America.

Aquila, Prisca, & 4 boys

(March 19, 2023)

##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사랑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가을에 이 나라에 온 지 5년이 됩니다. 4년전 이 계절에 브리스길라는 한국의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구레네 시몬을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로 저희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려 금요일, 그리스도의 수난,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4년전 작성)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 보고 싶은 사람은 요즘 구레네 시몬 같습니다. 그는 운이 나쁜 것 같지만 복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로마 병정이 무서워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러나 침묵한 이름 없는 비참한 청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다가 보니 이상하게도 그분의 피땀 흘린 눈물과 지친 호흡소리가 시몬의 모든 열등감과 죄를 다 씻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끙끙거리면서 올라간 골고다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언제 마음이 변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지? 언제 눈물로 깨달았는지? 왜 그 때 조금 더 주님을 위로를 못했는가? 왜 욕을 했는지? 시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어린양 인줄 알고 경배를 했는지? 언제 눈물로 흐느끼면서 깨달았는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5 월에 가까운 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주간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재원 부부)
3. 아굴라가 3 월초 6 주 온라인 선교 커넥션스쿨 강사훈련을 마쳤는데 열매가 생기도록.
4. 더 많은 사역 기회를 위해 지역 교회와 네트워크 형성되도록, 저희는 3 월초에 지역 선교 소그룹에서 선교간증을 했습니다.
5. 중독재활원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도록
6. 브리스길라의 안전운전과 MK 학교에서 잘 가르치며, 아굴라의 건강과 여름 방학 미국 방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함영성민

(2023 년 3 월 19 일)